



SHANZAI

Rissho Kosei-kai

Vol. 83



會長 法話

덧셈· 곱셈의 인간관계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다른 점을 존중한다

일본에서는 옛부터 일체 사물을 만들어내는 영묘한 힘을 「산령(産靈)」이라 쓰고 「무스히(産巢日)」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스비(結び)」와 상통하는 말입니다만, 맺어지고 결합함으로써 일체사물이 만들어진다는 사고방식과, 「모든 것은 연(緣)에 의해 일어난다」(연기)고 하는 불교의 기본이 일치하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맺어지는 연에 의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덧셈의 관계, 상승효과를 낳는 곱셈의 관계, 그리고 뺄셈과 같은 부담스러운 관계... 그 속에서 우리들은 보통 덧셈과 곱셈의 인간관계를 바라고, 가능하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편안한 관계가 반드시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마주하다 보면 머지않아 서로의 관계가 단순해지고 화제거리나 관심의 폭도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전성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곱셈과 같은 인간 관계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이 하나가 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이러한 연의 모습을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연을 맺는 것이 발전성과 창조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그곳에 인생의 맛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경력도 전혀 다른 개조님과 협조님께서 그런 다름을 초월하여 서로의 개성을 발전시킨 것이 본 회의 탄생으로 맺어졌다는 사실도 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존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를 「제바달다가 선지식(善知識)」이라 찬탄하시며 모든 것

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가까운 인간관계로 바꿔놓고 보면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대방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임에 따라서 인생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공경과 사랑의 끈을 잇는다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지닌 맛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확립한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로써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대한다. 이 자세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한 후 관계회복의 실마리는 성실함과 솔직함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과

의 다름을 인정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절대로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금 다시 한 번 주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을 향해 전념하고 있으면 남과 다르다는 것 등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름을 향상의 거름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의 뿌리가 되는 것은 「천지동근(天地同根)·만물일체(萬物一體)」라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 한 점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과 친하게 지낼 때 어떠한 인간관계도 모두 곱셈을 넘어서 그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비록 마이너스로밖에 보이지 않는 관계이더라도 「일천사해(一天四海)·개귀묘법(皆歸妙法)」이라고 너그럽게 연을 음미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풍요롭게 물들이는 보물로 바뀔 것입니다. ❖

『佼成』 2012年7月号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니교, 협조 나가누마묘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니찌포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써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Tokyo, Headquarters

North America (RKI of North America)

- Vancouver, Canada
- Seattle
- Klamath Falls
- San Mateo
- Sacramento
- San Jose
- Colorado
- Denver
- Chicago
- Dayton
- New York
- Oklahoma
- Tampa Bay
- Dallas
- San Antonio
- Hawaii
- Kona
- Mauai
- San Diego
- Las Vegas
- Arizona
- Sao Paulo, Brazil
- Mogi das Cruzes
- Sao Miguel

South Asia (RKI of South Asia)

- Ulaanbaatar, Mongolia
- Sukhbaatar
- Sakhalin, Russia
- Seoul, Korea
- Pusan
- Masan
- Shanghai
- Taipei
- Taichung
- Jilung
- Tainan
- Pingtung
- Phnom Penh
- Singapore
- Bangkok, Thailand
- Sydney, Australia

Other Regions

- London, The United Kingdom
- Geneva, Switzerland
- Venezia, Italy
- Kathmandu, Nepal
- Lumbini
- Delhi, India
- West Delhi
- Kolkata
- Colombo, Sri Lanka
- Kandy-Wattegama
- Polonnaruwa
- Habarana
- Galle
- Chittagong, Bangladesh
- Dhaka
- Mayani
- Patiya
- Domdama
- Cox's Bazar
- Satbaria
- Laksham
- Raozan
- Chendripuni

SHAN-ZAI 2012年8月号 (Vol. 83)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中村悦子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工藤友紀乃・齋藤華央留・江藤真弓・鈴木佐祐里・金尾江利子・牧野江身・野川友里江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版」「モンゴル語版」「タイ語版」「ベンガル語版」「ヒンズー語版」「ロシア語版」「マケドニア語版」がございます。また、号によってはその他の言語版が発行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ご遠慮なく上記の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